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중동 순방 성료 서울-암만-카이로 도시외교 협력 로드맵 합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단순 우호 교류를 넘어 교통, 스마트시티, 교육 등 분야에서 서울의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단은 지난 2일 요르단 암만에

서 유세프 알샤워베(Yousef Al-Shawarbe) 시장과 면담했다. 방문은 통한 양 도시간 직접 교류는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알샤워베 시장은 “암만의 최우선 과제인 스마트시티 전환과 대중교통 현대화에서 서울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암만시가 주전한 교통통제

센터(Traffic Control Center), 타렉 BRT 버스정류장(Tareq Bus Station), 지역 아동센터인 자하 문화·커뮤니티센터(Zaha Culture and Community Center) 등을 시찰했다. 암만시는 BRT와 마을 버스 운행체계 연계에 관심을 보였다. 서울의 교통 운영 경험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브라힘 사베르(Ibrahim Saber) 주지사와 회담했다.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합의 이후 한국의회 차원의 첫 방문이다. 사베르 주지사는 도시재생과 교통 정책 분야에서 서울의 경험 공유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카이로는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교통 체증과 노후 지역 재생이 주요 현안이다.

대표단은 MITI(Metropolis 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 카이

로 분원이 있는 HBRD를 방문해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석사과정(MUAP) 수료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장은 이들이 이집트 각계에서 서울 정책을 전파하는 핵심 ‘지한파(知韓派)’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의회 차원의 지속적 교류를 약속했다.

한편 대표단은 1997년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된 카이로 ‘서울공원’을 점검했다. 공원은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다. 특히 한국 전통 정자는 바닥 목재 고운과 난간 부식 등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대표단은 전통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호정 의장은 “중동 지역에서 서울의 행정 역량에 대한 높은 신뢰를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파악한 수요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공백 해소 등...2026년 사업 내실 추진 촉구



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 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1과와 사업 부서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

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반환·회수금 관리와 관련해 “현재 반환 예정 금액 중 약 6억 9천만 원만 회수된 상태”라며, “남은 반환 예정 금액에 대해서도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 주체별·절차별 진행 상황을 구분해 차후 보고 시 체계적으로 정

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키텍스 신임 사장 취임과 관련하여 “키텍스가 시설 확장과 사업 환경 변화라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만큼, 단기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조직과 인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2026년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경제노동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민수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이 함께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 2025년도 활동 및 성과 보고 ▲ 2026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 ▲ 구호 제작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2025년도 회계 결산 보고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배 의장은 또 “이 사안은 단순한 도시 간 개발 갈등이 아니라, 화성의 자치권·행정권·시민주권의 문제”라며 “화성지구는 갯벌과 습지가 살아 있는 생태 공간으로, 군공항 이전은 소음 이전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안전 위험을 동반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향리의 아픈 기억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2026년도 첫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며 새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현충원 참배는 2월 9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진행됐으며, 연합의회 의원 16명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을 올리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으며, 이어 방명록을 작성하고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노금식 의장은 “나리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깊이 기리며, 그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충청권 주민의 삶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번 참배를 계기로 조심을 잊지 않는 의정활동과 충청 시·도민과 함께하는 광역협력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점에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경험과 창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정책 참여와 제안이 서울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이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제과 사업을 의미한다”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의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위원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주체들”이라고 밝혔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해 운영되는 청년 참여 기구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 정책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 구조를 바탕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청년의 참신하고 현실적인 제안이 도시계획·주거정책·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제안은 서울의 미래 공간 구조와 도시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아이디어를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실질적 통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장성 기자

김길영 서울시의원, “청년들의 정책 참여는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동력”



점에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경험과 창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정책 참여와 제안이 서울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이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제과 사업을 의미한다”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의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위원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주체들”이라고 밝혔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해 운영되는 청년 참여 기구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 정책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 구조를 바탕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청년의 참신하고 현실적인 제안이 도시계획·주거정책·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에서 김길영 시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공간이 청년 세대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은 단순히 건물 등의 양적 확장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여가·교육 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안건 처리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밖에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상영 부의장이 도시계획시설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시정질문을 이어 나갔으며, 같은 날 노영준 의원은 반도체 사업으로 위시한 국가 전략산업 추진 간 지역 협력을 강조하는 자유발언을 전개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현주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태전역 신설을 위한 당위성에 대하여 역설했다.

광주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본회의는 단순한 의결 절차를 넘어, 민생의제와 깊게 결부되어 있는 주요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아이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경제 모델인 ‘에너지 복지’의 기틀을 마련했

송민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촉구



이 함께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 2025년도 활동 및 성과 보고 ▲ 2026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 ▲ 구호 제작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2025년도 회계 결산 보고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배 의장은 또 “이 사안은 단순한 도시 간 개발 갈등이 아니라, 화성의 자치권·행정권·시민주권의 문제”라며 “화성지구는 갯벌과 습지가 살아 있는 생태 공간으로, 군공항 이전은 소음 이전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안전 위험을 동반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2026년도 첫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며 새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노금식 의장은 “나리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깊이 기리며, 그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충청권 주민의 삶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번 참배를 계기로 조심을 잊지 않는 의정활동과 충청 시·도민과 함께하는 광역협력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